

동지가 금속노조다!

대전충북지부

22호

발행인 : 김정태

발행일 : 2021년 3월 29일(월요일)

발행처 : 금속노조 대전충북지부 교육선전부

민주노조 사수! 대양판지 투쟁 승리하자!



대양판지에 어용노조만 3개째!

민주노조를 깨기 위한 대양판지 자본의 범죄 행위가 끝 모르고 이어지고 있다. 대양판지에는 지금 4개의 노조가 있다. 금속노조 대양판지지회와 회사가 개입한 어용노조 3개다. 금속노조에 대응하기 위해 만든 어용노조가 노동청으로부터 설립취소 처분을 받자, 곧바로 제4노조를 만들었다. 대양판지 자본은 금속노조를 탄압하겠다는 의지를 굽히지 않고 있다.

우리는 더 큰 단결과 연대로!

지난 26일(금) 점심시간에 대양판지 청주공장에서 금속노조 결의대회가 열렸다. 지회 설립 1주년을 맞이하는 이 날, 대양판지지회 조합원들과 대전충북지부 간부들이 모여 민주노조 사수를 결의했다.

김정태 지부장은 “지회 설립 1주년 정말 축하한다. 그러나 1년을 까먹을 수밖에 없었다. 그 중심에 복수노조 교섭창구 단일화 제도가 있다. 대양판지는 교섭창구 단일화가 단결권을 얼마나 훼손하는지 잘 보여줬다.

이 제도는 복수노조 뿐만 아니라 모든 투쟁하는 민주노조 탄압의 도구이다. 민주노조라면 반드시 함께 투쟁해야한다. 지부 확대간부가 앞장서서 교섭창구 단일화 폐기하자.” 고 대양판지 투쟁의 의미를 강조했다.

김훈 대양판지지회장은 “검찰 압수수색, 범죄 수사, 국회 국정조사, 어용노조 설립 취소 모두 받아도 회사는 죄의식 조차 없다. 오로지 금속노조만 막으면 그만이다. 어용노조 해체로 그치면 안된다. 빼앗긴 우리 권리를 온전히 원상회복하겠다.” 며 투쟁 의지를 밝혔다.

교섭창구 단일화 폐기하고 민주노조 사수한다!

지부는 대양판지의 민주노조 사수 투쟁과 복수노조 교섭창구 단일화 폐기 투쟁을 가열차게 벌어나갈 계획이다. 2021년은 지역에서부터 전국 곳곳으로 복수노조 교섭창구 단일화 폐기투쟁이 번져나갈 수 있도록 만들 것이다. 복수노조에서 온전한 노동3권이 보장되는 것이 모든 투쟁하는 민주노조의 노동3권을 보장하는 길이기 때문이다.